

기념사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교단을 수립한지 5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불교계는 왜색불교의 청산을 통한 수행전통의 회복과 자주적 교단의 건설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교단 건설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실추된 승풍을 진작하여 수행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특히 ‘오직 부처님 법대로만 살아보자’며 청정한 수행을 실천에 옮긴 봉암사 결사는 불교의 근본정신 회복은 물론, 수행 전통을 새롭게 확립하여 정화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우리 종단 성립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종단은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종교로서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정신을 계도하는 자랑스러운 면모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는 수행자의 진면목으로 스스로가 시대정신을 망각한 때는 모든 대중이 공의를 모아 개혁을 이루어내는 전대미문의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생존 자체를 위협했던 혼란스러운 근현대사가 그대로 투영되면서, 사회 전체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국민들을 올바르게 보듬지 못하는 한계에 마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지난 50년이라는 역사의 거울은 지나온 모습뿐 아니라, 앞으로 시대와 사회의 요청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거울 앞에 자성과 쇄신이라는 실천적 결단으로 서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종교로 거듭나고, 못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현대적으로 실천하자는 종단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며 희망찬 미래를 열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반세기를 기념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고 인간과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부과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역사의 거울은 우리 종단이 국민과 사회에 보다 가까이에서 함께할 것을 묵묵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예와 자부심에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과 극복해야 할 것을 더욱 크게 생각해야 하

겠습니다.

5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를 통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불교이념과 모든 존재의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진력을 다한 선대의 원력에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사부대중과 더불어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밝혀나가겠다는 불퇴전의 서원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함께 용왕매진(勇往邁進)하기를 기원 합니다.

불기2556(2012)년 4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